



'95 중소기업 육성 시책

통상산업부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세계화 전략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인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세계화의 제약 요인이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인 규제 개혁과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으로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농업 및 중소기업이 개방화·자유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

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환경 등 생활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원활한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1. '95년 통상산업부 중점 추진 시책

금년은 WTO 체제 출범 첫 해로서 통상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 본격적인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시장

을 비롯한 해외시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경제전쟁의 첨병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 산업의 세계화 기반 구축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 체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동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인력·입지·물류 등 산업활동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기업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산업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기술 및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및 한·일 기술협력사업의 확대와 “제1회 APEC 테크노마트” 개최로 아·태 지역의 기술협력력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지식집약 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육성하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다. 경쟁력 약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업종전문화를 정착시켜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 경쟁과 협력의 통상활동 전개

WTO 체제 출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내제도를 WTO 체제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노동·경쟁·정책 등 새로이 제기되는 다자간 통상 의제의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종래의 통상마찰 해결에 머무르던 양자간 통상활동을 한 단계 높은 산업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통상활동을 전개하고



EU·NAFTA 등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A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교역 2,000억불 시대에 맞는 무역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연불수출자금·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간접무역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상품일류화 사업과 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제고하는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3) 에너지 수급안정과 안전관리의 강화

'95년에도 전력수요 증가로 수급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계획(230만 kw)에 추가하여 74만 kw의 발전소를 여름철 전에 건설하고 전기요금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조정하고 민자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

역의 지원을 확대하여 원전 신규 입지 2개를 선정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과 가스·전기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9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화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기술력 제고를 집중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책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며 만성적인 담보부족 및 상업어음 할인 애로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자적

협력분위기를 정착시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 노력에 상응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 촉진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1)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대폭 확대

가. 상업어음 할인재원의 확충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1,000억원을 재특에서 지원하여 4,000억원의 상업어음 할인을 추가지원하고 (상업어음할인 잔액: 2조 8천억원) '95년중 1,4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재특지원과 증자로 9,600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할인된 상업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표지어음 발행업무를 상호신용금고에도 허용하고('95. 4) 3단계 금리자유화시 표지어음 매출조건을 완화할 것이다.

나. 외화자금 조달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하고('95. 2)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자유화('95. 2)할 것이다.

다. 직접금융기회의 확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유

상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물량은 전액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할 것이다.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1,200억원인 창업지원기금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10대 기업그룹중 소유분산이 잘된 그룹에 한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현재 20%)를 철폐하여 창업투자 재원을 확충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거래 증개실과 증권회사간 온라인망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거래소시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상장요건중 업력 10년을 7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획기적 보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운용배수를 확대하고(현행 15배→20배 확대검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간('95. 12)을 연장하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조기 집행하고 출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 '95년 예산: 4,100억원 (신

용보증기금 2,900, 기술신용보증기금 1,200)

자조적인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중 경남, 광주 시 등 관심이 높은 2~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등이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토록 허용하고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시 운용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설립확대 허용할 것이다.

3)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추진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신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도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월부터 조기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고 저리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금리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5월부터 중소기업복권을 발행할 계획이다.('95년 400억원 계획)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업계의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추진기간을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인 '97년까지 연장하고 1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원(4조원→5조원) 할 것이다.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화공단내에 건립중인 자동화센터를 12월중 완공하고 내년부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연수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

확이다.

4) 품질혁신사업의 대대적 전개
제품 100만개당 불량률을 100개 이하로 관리하는 “100PPM 품질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추진본부를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하였으며 3월말경 경제 5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 규모의 진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교육, 기술지도, 진단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품질인증기준인 ISO 9000규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업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며 현재 123개인 인증업체를 2000년까지 5,000개로 확대할 것이다.

이상의 추진업체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이 “기업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목표달성때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품질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주관방송 및 언론사를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비디오테입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할 것이다.

5)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생산인력 공급확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기술하부구조의 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을 금년중 마련하여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크게 늘리며 (공업기

반 기술자금 : ('95)1,414억원→('95)1,888억원)

(한국종합기술금융 : ('94)7,307억원→('95)1조원)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타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산업화를 지원하고 고가첨단 연구기자재를 염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부품분야의 한·일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4개 분야인 협력사업의 범위와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협력형태도 합작투자 등 적극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생산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군입영대상중 기능인력을 생산현장에 활용하는 병역지정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6)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의 건립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복잡한 유통구조와 홍보부족으로 제품판매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건립하여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격과피도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94년말 203억원을 들여 서울 목동지역에 부지를 매

입하고 지난 1월 17일 건립추진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중 착공하여 '97년중 완공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1/4분기 중 중소기업 및 대기업 경영자의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경영자의 의식개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납품대금 적기 지급 등 내실있는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열화업종으로 지정하여 협력생산체제로 유도 (1,053품목) 하고 대기업사업중 중소기업의 생산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사업이양을 촉진할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6개사에 설치된 “수급기업협의회”를 계속 확대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동반진출 등 공동사업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늘리며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비율에 대하여 조세감면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8)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창설을 허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용보증을 가능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재원(2,300억원 내외) 확보상황에 맞춰 조기에 배정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 전남, 강원 3개도에 소재한 공업단지중 5개 공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95. 2) 하여 입주업체는 농공단지에 준하는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할 것이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서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중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를 광주, 대전에 건립하고 운영성과를 보아 '96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건립할 것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강하기 위해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9)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중 일정분을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하여 장기저리의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원을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한편,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에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험도 지원 검토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취득에 관한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예)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의 중소기업 공장용지로의 특례처분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시 이외의 지역 : 400평방미터→700평방미터)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 추진시(기존 공장의 50%범위내에서 증설 허용) 신용장(일람불)방식 수출에 대하여 수출승인을 전면 폐지하고 기타 방식의 3만불 이하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모든 중소기업 관련 행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다.

3. 주요 기관별 중소기업 관련 시책

1) 재정경제원

가. 중소기업 대출가용 자원 확충

중소기업은행의 활인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94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95년에도 1,000억원을 재특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자금면에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94년 1,800억원 증자에 이어 '95년중에도 1,400억원 증자를 유도하여 재특지원과 증자는 총 9,600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활인된 상업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표지어음 발행업무를 상호신용금고에도 허용하고 ('95. 4) 금융기관의 표지어음 매출조건을 3단계 금리자유화시 완화하여 표지어음 매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나. 외화자금 조달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상(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연장('95. 2. 13)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완전 자유화 ('95. 2. 13)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를 완전자유화 (한도제 폐지)할 계획이다.

다. 직접금융기회의 확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물량은 전액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거래 증개실과 증권회사간 온라인망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에 확대하는 한편 거래소시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상장요건중 업력 10년을 7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추진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신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선사업을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을 확대할 것이다.

- 지원기간 연장 : '96말 까지 → '97말까지 (1년 연장)
- 지원규모 확대 : 4조원 → 5조원 (1조원 증액)

또한 '95년 1조원의 자금을 2월 부터 조기에 집행할 것이다.

마.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의 획기적 보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법정 보증운용배수를 확대검토하여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추가보증 지원규모를 약 4조 3천억원 수준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95.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효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법상의 보증효율 최고한도를 철폐할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을 조기집행하고 출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2) 노동부

가. 최저임금액 인상

· '95년도 최저임금액 : 시급 1,170원, 8시간 기준 일급 9,360원 ('94년에 비해 7.83% 인상)

나.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①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활성화

공공부문에서 매년 20만호를 건설하여 이중 10만호를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근로자 주택에 대한 선호도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과 근로자주택의 혼합건설·공급방식 정착 시도 강화, 근로자주택 등 18평 이하 주택당첨자에게 10년 경과후 1순위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근로자주택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② 주택자금 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등 공공기금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확충, 국민주택기금에 출연된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중점지원하고 주택 실구입 자금의 30~40%에 불과한 주택자금의 호당 용자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다.

다. 근로자 장학사업 확충

기존의 노총 장학사업은 '98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씩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총조직근로자 위주의 지원에서 노총비조직근로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중소기업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계획기간중 50억원을 조성, 운영수익금으로 매년 1,0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무상

지원하고 전문대·대학생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저리 용자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

<근로자 장학사업 확충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	'96	'97
노총 장학사업 (국 고)	60	20	20	20
중소기업근로자장학사업 (복지기금)	50	50	-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복지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법상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사무실·구판장에 한해 소유가 허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근로복지 시설에 까지 확대할 것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자금용자, 학자금 지원, 우리 사주 구입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마. 중소기업근로자 체육 문화센터 건립

공단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체육, 문화시설을 갖춘 "근로자 체육·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2개소씩 건립하고 근로복지공사를 운영주체로 하여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저가의 우선 이용혜택을 부여 할 것이다.